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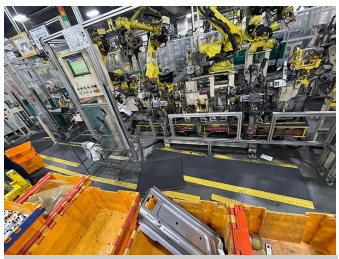
December 2024 Issue | Vol. 87

SPECIAL POINTS OF INTEREST

- 궁정, 한-필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명령 곧 발표 예상 —page 1
- 경제 수장: 필리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창출하라 —page 2
- BOI 승인 투자 44% 증가 —page 2-3
- 반도체 산업, EU가 자체 CHIPS 법안 추진하기를 희망 —page 3-4
- 노무라는 필리핀 경제가 내년에 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page 4
- 필리핀,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3년 기회 전망 — page 5
- 세계적 긴장 속에서도 자유무역 유지: WTO의 호소 —page 5-6

궁정, 한-필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명령 곧 발표 예상

December 02,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REUTERS

수출업체들은 이달 안에 발효 요건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새로운 관세 혜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리핀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국가 수출주간 행사에서 상무부 차관 앨런 B. 젭티는 양국에서 FTA가 비준된 후 다음 단계는 행정명령의 발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월요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행정명령은 12월에 발행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젭티 차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DTI)는 11월 18일자 한국 측에서 법적 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받았다. 해당 FTA는 필리핀 상원이 9월 23일에 비준한 바 있다.

그는 필리핀 협상팀이 새로운 관세 체제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효되면 관세가 바로 인하될 것이고, 1월에는 추가 인하가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어 "사실, 발효 날짜는 이미 합의했지만, 미리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젭티 차관은 FTA가 양측이 모든 국내 법적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 이후 두 번째 달의 첫날, 또는 양측이 합의한 다른 날짜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자 투자청(BOI) 책임자인 세페리노 S. 로돌포는 행정명령 외에도 관세청이 FTA 관세 약정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 양해각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FTA 발효를 위해 양측이 공식 통보를 교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재단 회장 칼릭스토 V. 치키암코는 FTA의 주요 수혜자로 바나나 수출업체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바나나는 중앙아메리카산 바나나보다 한국 시장에서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라고 치키암코 회장은 말했다.

지난해 한국은 필리핀 바나나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1억 6,454만 달러, 즉 신선 바나나 수출의 13%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으로의 바나나 수출이 1억 2,05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바나나 시장 점유율 유지 외에도 치키암코 회장은 FTA가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필리핀 내 공장 설립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항만과 에너지 같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투자자들이 이곳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에 체결된 이 FTA는 농산물 1,531개 관세 라인을 철폐하며, 그중 1,417개는 FTA 발효 이후 철폐될 예정이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12/02/638847/palace-order-implementing-s-korea-fta-expected-soon/

경제 수장: 필리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창출하라

December 05, 2024 | Kris Crismundo | Philippine News Agency

BOOSTING EXPORTS.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s and Economic Affairs (SAPIEA) delivers a speech at the National Export Congress 2024 at Conrad Hotel in Pasay City on Thursday (Dec.5, 2024). Go believes that th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to Maximize Opportunities for Reinvigorating the Economy or CREATE MORE will propel the growth of Philippine exports. *(PNA photo by Kris M. Crismundo)*

마닐라 – 필리핀 대통령 경제 및 투자 특별 보좌관(SAPIEA) 프레드릭 고는 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 법안인 CREATE MORE가 필리핀을 수출 중심지로 만들어, 해당 법이 사업 환경을 완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시킨다고 말했다.

목요일 파사이시에서 열린 2024년 국가 수출 회의에서 고는 이 법이 수출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CREATE MORE 법안의 수정 사항 중 수출업체에 유리한 점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VAT) 면제와 국내 구매 시 VAT 제로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투자 촉진 기관(IPA)에 등록된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수출 판매가 기업 총 생산량의 최소 70%인 수출업체에 제공될 수 있다.

고는 또한 CREATE MORE가 필수 비용에 대한 VAT 제로화 적용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등록된 사업체(RBE)의 전체 등록 기간 동안 VAT 및 세금 인센티브의 이용 기간을 복원하여, 이 인센티브에 대한 일몰 조항의 적용을 제거했습니다. CREATE MORE는 또한 VAT 및 소비세 환급 과정을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경제 수장이 말했다.

투자 측면에서 고는 CREATE MORE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150억 페소 이하의 프로젝트는 FIRB(재정 인센티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IPA에서 승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IPA에 등록된 경우 인센티브 최대 기간을 17년으로, FIRB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7년으로 연장했다.

"CREATE MORE는 필리핀 기업, 특히 수출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번영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라고 고는 말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39401

BOI 승인 투자 44% 증가

December 05, 2024 | Angela Celis | Malaya Business Insight

산업진흥청(BOI)이 승인한 투자는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 급증했다고 밝혔다.

BOI는 성명서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58조 페소의 투자를 승인했으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의 1.101조 페소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성과는 BOI가 2024년 투자 승인 목표인 1.6조 페소에 가까워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투자 승인 증가의 주요 원인은 에너지 분야,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분야는 1.35조 페소에 달해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월 만에 1.58조 페소의 투자 승인을 달성한 것은 우리 정부가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을 지원하며,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자 BOI 의장인 크리스티나 로케가 말했다.

한편, 다른 주요 성과를 낸 분야로는 항공 및 수상 운송이 1,212억 페소, 부동산 활동이 346.7억 페소, 제조업이 304억 페소, 수도 공급, 하수도, 폐기물 관리 및 복원 활동이 162.8억 페소, 농업, 임업 및 어업이 104.7억 페소, 도매 및 소매업이 82.5억 페소, 정보 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가 72.6억 페소를 기록했다. *[Cont. page 3]*

BOI 승인 투자 44% 증가

[Cont. from page 2]

특히 수도 공급, 하수도, 폐기물 관리 및 복원 활동 부문은 지난해 대비 1,540%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성장은 254% 증가한 국내 투자 덕분에 이루어졌으며, 필리핀 기업들이 1.06조 페소를 기여했다.

칼라바르존 지역은 6,231.9억 페소의 투자를 받아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지역으로, 그 뒤를 중앙루존(2,770.8억 페소)과 서부 비사야스(2,459.5억 페소)가 이었다.

기타 성과가 좋은 지역으로는 비콜 지역(1,428.9억 페소)과 일로코스 지역(870.4억 페소)이 있다.

"핵심 분야에 대한 강력한 투자는 국가의 주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우리의 꾸준한 진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 성장은 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 법안(CREATE MORE)과 같은 투자 친화적 정책의 정부의 확고한 실행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라고 대통령 경제 및 투자 특별 보좌관인 프레드릭 고가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필리핀을 주요 투자 목적지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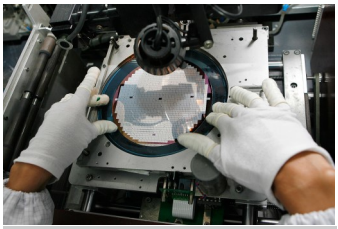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는 승인된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총 317.8억 페소에 달한다.

스위스가 2,890.6억 페소로 외국인 투자자 중 선두를 차지하며, 그 뒤를 네덜란드(405.9억 페소), 일본(146.7억 페소), 한국(127.2억 페소)이 이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corporate/boi-approved-investments-up-44/

반도체 산업, EU가 자체 CHIPS 법안 추진하기를 희망

December 04,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A worker operates the die attach machine at 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lant in Manila, Dec. 10, 2008. — REUTERS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협회(SEIPI)는 유럽연합(EU)이 미국의 CHIPS 및 과학법과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요일 EU-필리핀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SEIPI 회장인 다니로 C. 라치카는 EU가 반도체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CHIPS 법안은 약 529억 달러를 반도체 웨이퍼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는 데 할당합니다,"라고 라치카 회장은 말했다.

"EU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으며, 이는 대만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라치카 회장은 "필리핀에 반도체와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유입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성장하는 집적회로(IC) 설계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여섯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 EU 출신 회사는 없으며, EU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최대 EU 반도체 회사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라고 언급하며, EU가 필리핀에서 IC 설계, 웨이퍼 팹, 조립, 테스트 및 패키징 작업을 고려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라치카 회장에 따르면, 2023년 필리핀 반도체 산업은 456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이는 필리핀 전체 상품 수출의 62%에 해당한다.

"필리핀의 주요 다섯 개 수출 목적지 중 네 곳은 아시아에 있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홍콩이 최대 수출 목적지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두 번째이고, 중국은 이제 세 번째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EU의 경우, 주요 두 수출 목적지는 사실상 독일이 약 4.9%, 네덜란드가 약 2.5%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를 합치면 약 40억 달러에 달하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수치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Cont. page 4]*

반도체 산업, EU가 자체 CHIPS 법안 추진하기를 희망

[Cont. from page 3]

그는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산업이 이전 정부 하에서 인센티브 합리화에 따라 자본이 유출되면서 입지를 잃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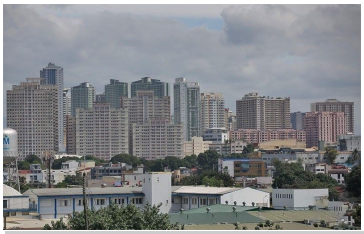
"하지만 좋은 소식은 새로운 정부가 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 법안(CREATE MORE)과 기타 인센티브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의 재도약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낙관적입니다. 필리핀은 강력하고 개방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EU로의 수출에도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12/04/639416/semiconductor-industry-hoping-eu-pursues-its-own-chips-act/

노무라는 필리핀 경제가 내년에 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December 05, 2024 | Catherine Talavera | The Philippine Star



The bustling city landscape of Metro Manila is photographed on January 30, 2024.
STAR / Ernie Penaredondo

마닐라, 필리핀 — 일본 기반의 노무라 글로벌 리서치는 필리핀의 경제 성장이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공식 목표를 밑도는 6%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는 2025년 아시아 매크로 전망 보고서에서 2024년 5.6%에서 2025년 6%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최신 성장률 목표 범위인 6-8% 중 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공공 투자 지출이 중요한 성장 엔진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마르코스 행정부의 주요 우선사항인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전을 더 촉진할 것입니다. 이 추진은 2025년 5월 12일 중간 선거에서 추가적인 추진력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노무라는 말했다.

"지속적인 인프라 구현은, 우리 관점에서는, 대출 비용이 감소하고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서 민간 투자 지출을 유도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무라는 보다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전망과 임금 상승이 소비자 심리의 반전과 가계 지출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가계 지출은 회복 조짐을 보이며, 실제로 3분기 GDP 성장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되찾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리서치 회사는 강력한 외부 경제적 역풍이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일부 상쇄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필리핀은 (미국 차기 대통령) 트럼프의 정책 제안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악화되는 미중 관계의 교차 불똥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세금이 외부 수요에 부담을 줄 것이고, 국내 소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송금은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 강화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노무라는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은 지역 동료 국가들에 비해 더 제한적이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이 증가하면 트럼프가 중국의 군사적 assertiveness에 대응하여 미국이 지역 안보를 덜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쌍둥이 적자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025년 재정 적자가 GDP의 5.5%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여전히 정부의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MTFF) 목표인 5.3%보다 높고, COVID-19 이전의 평균인 2.4%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라고 노무라는 말했습니다.

또한 선거와 지출 우선순위로 인해 MTFF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2/05/2405017/nomura-sees-philippine-economy-expanding-6-next-year

필리핀,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3년 기회 전망

December 06, 2024 | Malaya Business Insight

VENDORS attend to customers at a market in Quezon City, Nov. 22. Inflation picked up to 2.5% in November, the statistics agency said.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국가의 투자 담당자는 동남아시아로 다각화하는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단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필리핀 대통령 경제투자 특보는 TV 인터뷰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재정비 및 세제 인센티브법(CREATE MORE)의 제정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 감소를 되돌리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심지어 어느 정도는 싱가포르까지 많은 투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이 분야에서 뒤쳐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기회를 놓쳤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다각화를 위한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를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기회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의 창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Go)는 "(CREATE MORE 법안)이 즉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아마도 2027년까지의 3년 동안,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창문에 해당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는 목표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 반도체, 태양광 패널, 철강 등과 같은 제조업을 필리핀으로 다시 유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명한 CREATE MORE 법안(공화국법 제12066)은 CREATE 법 하에서 도입된 경제 개혁을 바탕으로, 필리핀의 세제 인센티브를 글로벌 경쟁력 있게 만들고, 투자 친화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REATE MORE 법안은 그 외에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공제 항목을 늘리며, 특정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및 국내 구매에 대한 세금 제로화 등을 제공하고, 정보기술(IT)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기업들이 자택 근무와 같은 대체 근무 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enterprise/ph-sees-3-yr-window-to-attract-major-fdis/

세계적 긴장 속에서도 자유무역 유지: WTO의 호소

December 05, 2024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세계무역기구(WTO)는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와 ASEAN의 '중견국'들이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개방된 무역을 계속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역산업부(DTI)에 따르면 DTI 국제무역관계국(BITR) 셰릴린 D. 아키아 국장은 Viber 메시지를 통해 WTO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 및 ASEAN의 중견국들이 "개방된 무역을 촉진하고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무역의 혁신적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12월 3일 만달루용 시에서 필리핀 무역산업부(MTI) 장관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구에르-로케, DTI 부장관 앨런 B. 겁티, DTI-BITR 셰릴린 D. 아키아 등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확인된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다음 날 말라카냥에서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촉구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글로벌 무역 문제에 대한 매우 흥미롭고 잘 알려진 논의가 있었으며, WTO가 이러한 긴장을 관리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지원하는 중견국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했습니다."고 WTO 사무총장은 트위터에서 말했습니다.

아키아는 WTO 사무총장이 2024년 12월 4일 필리핀 재무, 무역, 농업부 장관들과 함께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공식 방문 및 예의상 인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Cont. page 6]*

세계적 긴장 속에서도 자유무역 유지: WTO의 호소

[Cont. from page 5]

"DG 응고지는 WTO 회원국들을 공식 방문하고 G-20, G-7, 아프리카 연합, APEC, 카리브 공동체(CARICOM)와 같은 고위급 국제 및 지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하기 전, 응고지 DG는 칠레, 페루,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의 국가 원수 및 정부 수장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라고 필리핀 무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WTO의 총회는 합의에 의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를 두 번째 4년 임기인 2025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무총장직에 재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총회에 보낸 성명에서, WTO 사무총장은 세계가 "불확실성,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지정학적 긴장, 분쟁과 전쟁, 기후 변화, 인공지능 및 기타 신기술 중심의 빠른 기술 변화" 속에 갇혀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글로벌 협력과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콘조-이웨알라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기에 두려움,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커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구조와 기관들이 빠르고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166개 WTO 회원국의 수장은 이러한 글로벌 문제들이 "어떤 한 나라나 회원국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들의 해결책은 글로벌 협력과 다자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TO의 이점을 언급한 오콘조-이웨알라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이 "1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절대적인 빈곤에서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서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오콘조-이웨알라는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역무역협정(RTA)을 고려한 후, WTO 규칙이 세계 상품 무역의 75~80%를 지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양자 및 지역 협정들이 WTO의 틀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플랫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기업과 가구들이 직업과 복지 측면에서 겪게 될 혼란과 불확실성은 얼마나 클지,"라고 WTO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측은 아퀴아가 전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은 1995년부터 WTO 창립 회원국으로서, 주요 다자간 협정의 서명국으로서 WTO 사무총장에게 필리핀의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서의 의무와 약속을 계속 이행할 것임을 확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2026년 3월 카메룬에서 열리는 제14차 각료회의(MC14)를 대비해 WTO 내 개혁 가능성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라고 아퀴아는 이 신문에 말했습니다.

제네바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문제로는 WTO 분쟁 해결 시스템 개혁, 어업 보조금, 농업,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결과 도출 등이 있다고 DTI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한편, WTO 사무총장은 필리핀의 "강력한" 경제 성과를 인정하며, 세계적인 도전 속에서도 필리핀의 경제 성장과 서비스 분야의 높은 성장, 디지털 거래 서비스의 성장을 칭찬했습니다.

앞으로 아퀴아는 WTO가 여성과 마이크로, 중소기업(MSME)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글로벌 경제에 통합하기 위한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를 증가시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age credits: Aleksandr Atkishkin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2/05/open-trade-despite-global-tensions-wtos-app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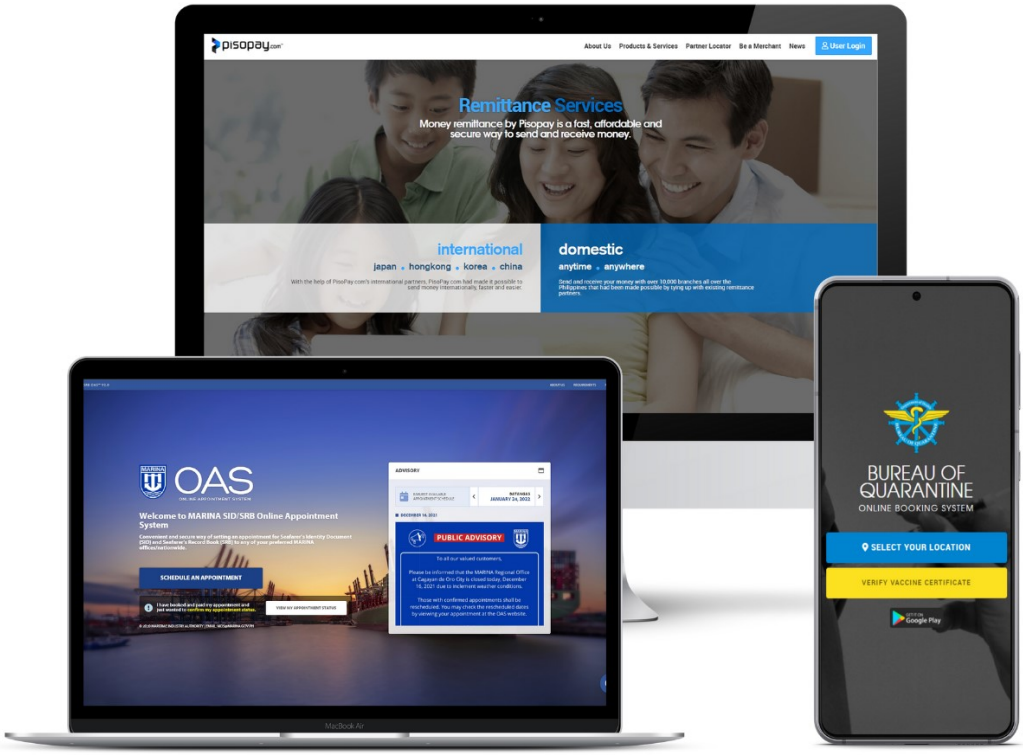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pisopay.com™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UNI-GROUP OF COMPANIES